

---

# 'HCN 초대석 - 반갑습니다'

---

- ◇ 회 차 : 164회
-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오후 2시
- ◇ 녹화장소 : 현대HCN경북방송 스튜디오
- ◇ 출 연 자 : 유홍룡 원장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HCN 초대석, 신지원입니다.

해양자원의 원천인 바다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자원이 풍부한 만큼 청소년들이 미래의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또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유홍룡 원장님을 모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환경체험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Q1> 원장님, 오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설립취지,연혁,성과 등등)**

국립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해양환경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래 해양자원개발,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우리센터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있는데 작년 개원 이래 청소년가족 해맞이 축제, 청소년 바다 꿈 아카데미, 가족특성화 캠프, 취약계층청소년성장지원캠프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인증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Q2>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만큼 청소년들이 미래 해양자원 개발이나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펼치고 계신데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해양안전, 선박항해,극지연구,해양탐사)**

해양체험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해양체험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실내풀장에서 진행되는 **해양안전훈련코스**는 구명벌 체험, 건네주기 체험, 인명구조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명사고를 대처하는 방법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코스**에서는 해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태계인 극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현미경 등을 이용해 플랑크톤 및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양탐사코스**에서는 해양을 탐사하는 방법과 장비에 대해서 배우는 코스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6000m급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조종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선박항해코스**에서는 영덕의 강구항에서 독도까지 배를 조종해서 가보는 항해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

니다.

**MC Q3> 먼저 해양안전 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청소년들이 인명구조체험과 수중활동을 통해 해양안전기술을 배운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크가요? (세월호 사건 전에 이미 안전교육 실시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물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 7월 개원 이래로 꾸준히 학생들에게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 등 인명구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실내풀장 자체가 일반 수영 풀장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구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도자들 역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새로 도입된 **구명벌 체험**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양안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Q4> 세월호 참사로 정말 큰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양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명벌 운영, 생존선언문 낭독 등)**

이전에는 내수면 및 해수면 즉 물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수사고에 대한 예방 및 구조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뤘지만, 참사 이후에는 특별히 기증받은 구명벌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구명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부터 펼치는 방법, 접근해서 올라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구명벌에 올라 탈 때 탄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올라 탄 후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 안에 있는 생존물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 선언문을 낭독하게 합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이러한 체험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봄으로 인해 혹시 해양사고를 당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우리 센터는 이 부분의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MC Q4-1> 학생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에 박힌 듯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외워서 하는 방식도 좋지만 청소년들의 흥미와 눈높이를 생각해 각 단계별 행동요령의 이유 및 본질적 의미의 전달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실습하고 이후에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 전 해안가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가르쳐주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Q4-2> 이외에 대피훈련 등 좋은 안전체험교육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센터 캠프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생활안내를 통해 유해물질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불시에 비상대피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건물 내 화재 시 행동요령을 익히게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본관에서 실습하는 안전 프로그램은 [안전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각 사고별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준 후 삼인 일조 팀을 짜 한명은 환자의 역할, 한명은 치료자의 역할, 다른 한명은 촬영자의 역할로 아이들끼리 치료하는 역할을 자기들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서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영상을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마무리하는 생활 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MC Q4-3> 안전교육을 마친 뒤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해요.**

[해양안전훈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이름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활동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접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재미있고 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배우고 몸에 익힐 수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란 의견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처치海'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법, 삼각건을 이용해 상처 및 골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청소년들이 배우고 직접 해 봅니다. 청소년의 활동에 안전이 제일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이 부분은 특별히 인솔교사들의 의견에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MC Q5> 해양안전체험과 함께 스킨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재밌는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가요? (이런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안전훈련 체험의 일환으로 스킨다이빙 활동 또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M 수심의 풀장에서 스킨다이빙 기초 기술을 습득해 깊은 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스킨스쿠버 전문 자격을 가진 실무 강사진의 구성으로 특성화캠프 '청소년 해상구조 캠프'를 모집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스쿠버 다이빙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킨스쿠버 동아리 '영 다이버 동아리' 활동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 중 5명이 현재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레저스포츠 용도로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바다목장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의 도구로서 활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다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해초도 심고 해야하기 때문에 다이빙이 필수거든요. 재미와 해양과학을 접목시키면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MC Q6>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선박항해 체험은 청소년들이 해양관련 직업을 탐색해 보는 기회도 있다가요? (선박항해 체험 소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선장 한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박항해 체험코스에서는 학생들이 선장 외에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 통신사 그리고 특히 해양과학자(기상, 생물, 지질 전문가) 등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영덕에서 독도까지 각자의 임무에 맞게 시뮬레이션 항해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생들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선박이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돕고, 협동심을 기르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박의 종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선박 조립 키트를 조립해보며, 선박구조의 원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MC Q7> 해양사고현장수사대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무엇을 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양사고현장수사대는 학생들에게 지금껏 일어났던 해양사고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건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수사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적으로 조별 토론을 해보는 체험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사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및 해상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과 일련의 수사과정 기록을 통해 문제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Q8>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극지연구 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극지연구 체험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해양산성화 실험, 해양클로로필 실험 등등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하면 열대바다, 온대바다를 주로 떠올리지만, 극지 부근의 얼음으로 덮혀 있는 혹독한 환경의 북극해, 남극해 또한 바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코스에서는 이러한 극지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양환경에서 극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또한 극지연구소(해양과학실험실)에서는 체험관 앞바다에서 해수를 채수해서

동·식물플랑크톤을 관찰하고, 엽록소를 추출해보기도 하고, 또 해양의 산도를 측정하는 등 여러 해양과학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지연구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MC Q9> 아이들이 방한복을 직접 입어보며 이글루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한복을 입을 정도면 정말 추운가본데요? (이글루 체험 소개)**

사실, 실제 극지처럼 춥지는 않지만, 체험관 내 다른 곳 실내온도보다 5~7도 정도 낮게 유지하여 극지기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자들처럼 입는 방한복도 입어보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입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한복을 입고 얼음채취지도 돌려보면서 극지환경에 대해 간접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 Q10> 지구온난화로 극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해양환경보전이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를 터치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사진과 동영상 시청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발루라는 나라를 담은 자료 영상에 주목해볼만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 지상의 낙원으로 불리던 푸른 산호초 섬, 투발루는 지난 2002년 국토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극지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MC Q11> 해양탐사체험도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Ocean Impossible',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세요.**

Ocean impossible은 해양을 탐사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미션을 통해 동해의 심해 자원, 다양한 해양탐사 장비의 종류 및 구조, 해양탐사선의 중요성과 발전현황 이해하며, 잠수정과 잠수정의 로봇 팔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조종해보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MC Q12> 청소년들이 직접 무인잠수정을 조종해보는 활동도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실제 무인잠수정과 동일한 조종간을 이용하여 잠수정을 몰고 가서 수중작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무인잠수정이 운용될 때 필요한 조건 및 운용과정을 이해하고, 해양 탐사에 대해 청소년들이 흥미와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MC Q13> 이외에도 흥미로운 해양탐사체험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퇴적물 유형분석, 라인 트레이서, 해저지형 만들기 등)**

‘라인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자동작동로봇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가도록 실행해보는 것인데,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용해보는 이 활동을 통하여 무인 잠수정의 한 종류인 AUV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특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저지형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도 지형이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각각의 해저 및 해안지형의 명칭과 생성원리를 알아 본 후 직접 해저지형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도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은 해저지형을 이루는 ‘퇴적물’과 ‘입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영덕 앞바다 해안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체를 이용하여 분석해보는 실험을 통해 퇴적물을 통해 해양환경을 유추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MC Q14>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펼쳐지는 바다탐험가 과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탐험가 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숙박 시설 갖추고 있는 부분도 소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 배우자마자 숙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중점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다탐험가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해양센터에 머무르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프로그램들을 스토리별로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은 해양체험관과 센터본부 모두에서 진행되며, 해양체험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활동,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어우러져 진행됩니다.

숙소에는 각 층마다 완강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치가 숙소 전체에 구비가 되어있고 CCTV를 통해 아이들의 숙소에서의 안전을 담당하는 당직선생님들이 있습니다. 2박 3일간 안전한 바다탐험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Q15> 수학여행으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찾기도 한다면 정말 특별한 수학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 외우는 것 보다는 즐기면서 익히고 체험하는 것이 더욱 많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경북지역을 여행하고 영덕에 숙박하면서 해양을 테마로 수학여행을 즐긴다면 그것은 기존의 수학여행의 개념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센터 주변에는 풍력발전소, 해맞이 공원, 블루로드, 화석박물관, 해상공원 등 많은 볼거리와 배울 거리가 있어서 더욱 뜻깊은 수학여행이 될 것입니다.

**MC Q16> 방학 기간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는 해누리캠프도 있다구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누리캠프는 바다탐험과 과정과 수학여행 과정 보다는 보다 심화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해양탐사의 동해탐사대 캠프, 선박항해의 마도로스캠프, 극지연구의 ice age 캠프, 스킨스쿠버의 청소년해양구조캠프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양탐사의 동해탐사대캠프는 동해의 해양환경 및 물리적 특성과 잔존가치를 알리고, 심해탐사장비를 이용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바다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박항해의 마도로스캠프는 선박·항해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자 시뮬레이션 장비체험과 선박건조 및 항해 체험활동을 운영합니다.

극지연구의 ice age 캠프는 극지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대체자원의 종류와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운영합니다.

청소년해양구조캠프는 청소년 각자의 심신을 단련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과 스쿠버 풀장에서 기초 스쿠버 활동을 체험시키고자 합니다.

**MC Q17>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험관에 숙박 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과 전화신청 두가지입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하면 청소년활동란에 들어가 해당하는 곳의 프로그램의 일정을 확인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각 캠프마다 담당자 연락처는 다르니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줄 것입니다.

**MC Q18>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요. 국가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 조손가정 등 사회 여러 취약계층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해양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하여,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17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MC Q19> 학생들이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도 얻고 정서적으로도 만족을 얻을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 프로그램도 열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연수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참가대상이 다르지만 청소년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성인들입니다. 즉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과학 및 청소년학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이 포함 됩니다.

**MC Q20> 원장님, 해맞이 축제와 청소년 바다꿈 아카데미도 소개해 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 시절은 그 자체가 축제의 시기입니다. 우리센터 같이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와서까지 뭔가 배우라고 몰아치기에는 너무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할 것도 많은데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찌들고 학과과정에 쫓기다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오면 너무 많이 배우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고 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별히 즐길 거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해양센터의 청소년 해맞이 축제입니다. 영덕은 다른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해맞이의 명소입니다. 바닷가 산위에 자리 잡은 해양센터에서 보는 해돋이도 참 멋있고 인상적입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동해바닷가로 와서는 새벽잠을 깨고 일어나 손을 호호 불면서 해뜨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른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아빠 엄마 따라 아침 일찍부터 준비비고 일어나 추운 바닷가에 나가는 것이 고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맞이 축제에는 청소년들이 가족 단위로 혹은 친구들끼리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 센터에 와서 송년축제를 하고 새해 0시를 기해 서로 복을 빌어주며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 뜰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게 해서 옥상마루에 올라가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둥둥 울려 퍼지는 대복소리를 듣습니다. 그 뿐인가요. 새해 소원을 쓴 풍선을 바다로 날려 보내고 내려와 합류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따끈한 떡국을 나누는 것이 그 내용인데 금년에는 청소년 가족 일반인 합해 650여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해맞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바다 꿈 아카데미는 축제에 배움을 가미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우리센터에 와서 체험하는 것은 매우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흥미 있는 체험을 한 번 더 해보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다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여기에 착안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바다꿈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그냥 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자리 잡은 센터에서 축제를 즐기며 바다를 배우고 바다에서 꿈을 길어 올려보게 하자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바다꿈 아카데미 축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다소 축소해서

운영했는데도 매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MC Q21> 가뜩이나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느끼시는 보람이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센터에 온 청소년들이 캠프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아쉬운 마음에 제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번 캠프로 바다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바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뛰게 기쁘고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두가 해양센터를 다녀가 바다를 향한 큰 꿈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MC Q22> 원장님, 해양센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해양학자로 걸어오신 길이 궁금해요.**

저는 인공위성으로 해양을 관측하는 해양위성탐사를 전공으로 하는 해양학자입니다. 1976년 초에 지금 한국해양과학원의 전신인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서 프랑스 파견요원으로 선발되어 잠시 기간제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77년 말 당초 선발된 대로 프랑스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에 가서 1982년 해양원격탐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2010년 정년퇴직 때 까지 쪽 한국해양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귀국할 당시 해양원격탐사분야에는 박사급 전공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제가 이 분야에는 제1호인 셈이지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있으면서 해양지질분야 연구부서와 해양원격탐사분야 연구를 이끌어 오다가 국제적인 감각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본부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약 4년, 중국 칭따오 소재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부소장(한국측 소장)으로 2년 반여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직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해양위성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했는데 이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세계최초이며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정지궤도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게 되어 해양학자인 저로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해양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최대 조선소 보유,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 보유, 세계 2위의 원양어업대국 등 해양강국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세계최초의 정지궤도해양위성이 있거든요.

은퇴 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명예연구위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의 영덕에 위치한 근무처에 공채로 들어와서 다시 일선에서 일하게 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C Q23> 앞으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의 행보가 궁금한데요. 향후 추진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소년이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 인근에 위치한 대탄항에 바다목장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치어를 기르고 환경 친화적 구조물로 만들어진 해양체험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바다목장을 통해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해안을 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생태계의 아름다움 및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MC Q24>향후 굵직한 사업 추진계획 등**

작년에 제가 부임하여 센터에 와보니 모든 것이 꽤 잘 되어 있었지만 해양학자의 눈으로 찬찬히 뜯어보면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임해체험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름에 바닷가에 있는 우리센터에 오면 당연히 물속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을텐데 그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침 근처의 대탄리의 한 어항이 어선활동도 많지 않고 파도도 방파제로 막아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영덕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는 물도 맑고 깊지도 않아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곳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다목장만들기 체험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아마 청소년 바다목장체험으로서는 세계최초가 될 듯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물고기 등을 해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웻랩(Wet Lab.)과 함께 관측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원래는 선박에 타고 항해하면서 바다를 관측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전상의 문제와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관측 플랫폼입니다. 배의 갑판처럼 바다위에 길게 잔교를 만들고 그 끝에서 바닷물 채취, 온도 염분도 측정 등을 마치 배위에서처럼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위에 떠있는 배는 아니니까 안전하지요. 여기서 채취한 시료들은 웻랩으로 가지고 가서 망껏 분석하게 하는 것이지요. 잘 지도하면 논문도 몇 편 나올 겁니다.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잔교 끝부분 교각에 창을 만들어 해저현장관찰체험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풀어야할 문제는 다소 있지만 그 것이 제가 품은 우리센터의 미래 모습 중의 주요부분입니다.

**MC Q25> 마지막으로 HCN초대석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세요.**

바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곳인데도, 우리는 정작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다를 아끼기느커녕 오히려 바다환경을

훼손하고, 바다 생물을 마구 잡고 있지요. 이런 현실에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 체험센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바다와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바다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센터에서 좋은 체험을 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미래의 바다에 대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게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클로징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육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은연중에 바다와 육지는 따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결국 소중한 바다를 오염시킨 게 아닐까 합니다. 가까운 바다나 강으로 나들이 갈 때 쓰레기봉투 하나 챙기는 일,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HCN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